건축용도료 수요“ 답보"

94년 성장률 7 8%선 … 바닥재용 도료 급신장

94년 건축용도료 시장의 성장률은 자연증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축경기의 회복과 신도시 아파트공사로 인해 신규 수요는 소폭 증가했으나 94년초의 예상과 달리 아파트보수 도장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벽에 사용되는 수계도료 보다는 박닥재로 사용되는 에폭시나 우레탄 타입의 바닥재용 도료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4년 전체 건축용 도료시장의 성장률이 7 8%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닥재용 도료의 성장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축용 도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고려화학은 94년 건축용 도료의 매출액을 93년대비 15% 증가한 33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축용도료 전문생산기업인 삼화페인트도 시화공장 이전후 매출액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용도료 매출액 증감률 (단위 : %)

구 분	1993	1994(전망)
고려화학	13.5	15.5
대한페인트	7.4	10.4
건설화학	5.1	4.8
삼화페인트	8.6	25
벽산페인트	9.6	30
조광페인트	8.4	14.8
동주산업	2.5	9.5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아크릴에멀전계와 수용성 수지계인 에폭시계도료가 있으나 아크릴에멀전계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축용 도료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94년 건축용 도료시장의 채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페인트원자재 가격이 최소한 20%이상 상승했으나 건축용도료의 가격이 다른 도료에 비해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건축용도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료인 이산화티타늄은 94년 들어 300달러이상 상승했으며, 아크릴레이트의 가격도 평균 30%이상 상승했다.
한편, 95년 건축용 도료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축용도료 신규 수요를 주도했던 신도시 아파트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보수도장의 수요도 예상처럼 급성장할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료가격 상승이 몇몇 품목은 9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채산성확보를 위해서는 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건축용 도료시장 구조상 이것이 쉽지 않은 것도 시장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26>